



재회 한방풀이

다시 마주할 인연의 흐름

고 객 명 홍길동

출생연도 1994년 (양력 1월 18일)

발 행 일 2026-01-01

두 사람의 출생 정보와 해석 기준

두 사람의 입력 정보와, 이 책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출생 정보	1994년 1월 18일 · 양력 · 시간 미상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994년 1월 18일생 남성입니다. 출생 시각이 입력되지 않아 시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를 임의로 만들어 넣으면 나머지 해석까지 함께 틀어지므로, 연·월·일주 여섯 글자만으로 봅니다. 오행 개수를 셀 때도 분모를 여덟이 아니라 여섯으로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2001년 7월 23일 14시 20분생 여성입니다. 시각이 있어 네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정보량이 다르다는 점은 책 전체에서 유지됩니다. 상대 쪽 해석이 더 촘촘해 보이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성향 차이가 아니라 입력 정보의 차이입니다.

관계 경과를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별 이유,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차단 여부를 모르는 상태로 썼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주에서 읽어 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사실 정보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기 위해, 해당 지면마다 상황을 나눠 적었습니다.

- 1 출생 시각을 알게 되면 알려 주십시오. 신청자 쪽 시주가 서면 하루의 흐름과 만년 이후 해석이 더해집니다.
- 2 이별 이유와 마지막 연락 시점을 알려 주시면 23·42·43쪽이 실제 상황에 맞춰 다시 씁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2 장

나의 사주원국과 관계 해석

4 - 10

나의 사주원국표

계유(癸酉) · 을축(乙丑) · 갑진(甲辰). 시주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	일간	겁재	정인
음양오행	—	갑(양목)	을(음목)	계(음수)
천간	—	갑 甲	을 乙	계 癸
지지	—	진 辰	축 丑	유 酉
음양오행	—	진(양토)	축(음토)	유(음금)
십성	—	편재	정재	정관
지장간	—	을 · 계 · 무	계 · 신 · 기	경 · 신
12운성	—	쇠	관대	태
12신살	—	천살	화개살	장성살
신살·귀인	—	금여성 백호대살 현침살 화개살	천을귀인 화개살	천문성 도화살



나의 일주 동물 · 용

품이 크고 상상이 넓습니다. 판을 키우는 데 강합니다.

일간은 갑(甲), 큰 나무에 해당하는 양목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일지 진(辰)은 물기를 머금은 흙이고 편재에 해당합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주원국표

신사(辛巳) · 을미(乙未) · 정해(丁亥) · 정미(丁未). 네 기둥이 모두 섭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비견	일간	편인	편재
음양오행	정(음화)	정(음화)	을(음목)	신(음금)
천간	정 丁	정 丁	을 乙	신 辛
지지	미 未	해 亥	미 未	사 巳
음양오행	미(음토)	해(양수)	미(음토)	사(양화)
십성	식신	정관	식신	겁재
지장간	정 · 을 · 기	무 · 갑 · 임	정 · 을 · 기	무 · 경 · 병
12운성	관대	태	관대	제왕
12신살	월살	역마살	월살	지살
신살·귀인	화개살	천을귀인 천문성 역마살	백호대살 화개살	양인살 현침살 역마살



상대의 일주 동물 · 돼지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복이 붙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상대방은 출생 시각이 확인되어 네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일간은 정(丁), 가까운 곳을 오래 밝히는 음화입니다. 일지 해(亥)는 물이고 정관에 해당합니다. 불 아래에 물이 놓인 구조입니다.

충·형·해·파로 살펴보는 마찰 지점

축미충이 성립합니다. 반복 갈등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자의 월지 축(丑)과 상대의 월지·시지 미(未)가 축미충을 이룹니다. 충은 부딪혀 흔드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충이 걸린 자리입니다. 신청자에게 축은 정재, 곧 일상과 약속과 현실 관리의 자리입니다. 상대에게 미는 식상, 곧 표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충은 성격 충돌이 아니라 영역 충돌로 나타납니다. 신청자가 지키려는 일상의 리듬과, 상대가 지금 꺼내고 싶은 표현이 같은 시점에 부딪힙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가 되고, 상대 입장에서는 '또 미룬다'가 됩니다.

축미충은 토와 토의 충이라 바로 깨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부딪히며 소모된 형태였다면, 그 흐름이 이 충과 맞닿습니다.

삼합과 충이 함께 있다는 점이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잘 맞는다' 또는 '안 맞는다'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연결될 통로도 있고 부딪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24쪽에서 다루는 조건입니다.

관계	성립 여부	걸린 자리	관계에서의 의미
사유축 삼합(금)	성립	상대 사 + 신청자 유·축	함께 있을 때 결정이 빨라짐
축미충	성립	신청자 축 ↔ 상대 미	일상의 리듬과 표현 시점이 부딪힘
천간합	없음	—	말로 맞추는 관계는 아님
일지 간 충·합	없음	진 ↔ 해	가까운 자리에서의 직접 충돌은 없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여지가 있는가

연결될 통로는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국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유축 삼합이 성립합니다. 따로 있을 때는 없던 연결이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축미충도 성립합니다. 연결되는 자리와 부딪히는 자리가 둘 다 실재합니다. 한쪽만 들어 '가능하다' 또는 '어렵다'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조가 두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릅니다. 신청자에게 삼합의 금은 나를 치는 관계이기도 해서, 관계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때 본인이 먼저 지칩니다. 상대에게는 금이 재성 쪽이라 현실적인 판단이 서는 자리입니다. 같은 삼합이 한쪽에는 부담으로, 다른 쪽에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운의 흐름을 겹쳐 봅니다. 신청자는 2018년에 시작한 대운 구간의 끝자락에 있고 2028년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는 2026년에 대운이 바뀌는 자리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있던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관계에 관한 결정이 미뤄지지 않는 시기로 봅니다. 좋은 쪽으로든 아닌 쪽으로든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면 저절로 풀리는' 국면이 아닙니다. 삼합은 통로이지 결과가 아니고, 두 사람의 운은 결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흐릅니다. 다만 무엇을 하느냐가 시점보다 중요합니다. 표현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연락만 재개하면 축미충이 그대로 다시 작동합니다. 41쪽의 첫 연락 방식을 먼저 읽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답을 조건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차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가 아니고, 신청자가 무엇을 다르게 할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재접촉을 검토할 만한 국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지금은 아닙니다. 이 두 조건이 확률보다 정확한 기준입니다.

확률로 답하지 않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근거를 만들 수 없는 값이고, 듣고 나면 판단이 아니라 기대만 남습니다. 조건으로 답하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이 책은 뒤쪽 스물다섯 쪽을 그 준비에 씁니다.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 맞물리는 시기

두 흐름이 같은 방향을 보는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만 보고 '지금이 좋다'고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재회는 양쪽이 움직여야 성립합니다. 두 흐름을 겹쳐 보면 방향이 같은 구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청자는 2026년에 정리와 결론의 힘이 강하고, 상대는 같은 해에 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둘 다 '지금 상태를 계속 두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겹칩니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2027년 이후는 상대가 새 자리에 자리를 잡는 구간입니다. 안정될수록 지난 관계로 돌아올 이유가 줄어듭니다. 신청자도 2028년에 대운이 바뀌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정리하면, 겹치는 구간은 지금부터 2026년 사이입니다. 이 말을 '서둘러야 한다'로 읽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연락은 시기와 무관하게 같은 결과를 냅니다.

구간	신청자	상대방	겹침
현재~2026	매듭짓는 힘이 강함	전환 직전, 흔들림 있음	둘 다 움직이는 시기
2026	결론이 나는 해	대운 전환	관계 이야기가 나올 여지
2027	구간 마무리	새 자리 정착	방향이 갈라짐
2028 이후	새 대운 시작	정착 완료	겹침이 약해짐

상대에게 맞는 첫 연락 방식

세 문장, 용건 하나, 답하기 쉬운 끝맺음.

상대는 식상이 강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다뤄 본 사람에게 긴 글은 진심이 아니라 구성으로 읽힙니다. 첫 연락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세 문장을 넘기지 마십시오.

용건은 하나만 답습니다. 안부와 사과와 재회 제안을 한 번에 넣으면 상대는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에 반응합니다. 첫 연락의 목적은 대화를 여는 것이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끝맺음은 답하기 쉬운 형태로 둡니다. '잘 지내?'처럼 열린 질문보다, 답이 한 단어로 가능한 형태가 낫습니다. 정관이 작동하는 사람은 답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답을 미룹니다.

말투는 관계가 끝나기 전의 말투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굴면 예전 관계로 돌아가자는 신호가 되고, 상대는 방식이 그대로라고 읽습니다. 조금 정중한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 그대로 써도 되는 예시

안부형 — "잘 지내지. 지난번에 네가 했던 말 요즘 자주 생각나더라. 언젠가 짧게라도 얘기할 기회 있으면 좋겠다."

사과형 — "연락이 늦었어. 그때 네가 몇 번 말했던 거, 그때는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 그 얘기만 한번 하고 싶어."

간접형 — "지나가다 예전에 같이 갔던 데를 봤어. 별 뜻은 없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세 가지 모두 세 문장이고, 용건이 하나이며, 답이 짧아도 되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이별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사과가 필요한 국면이면 둘째, 그냥 끊긴 관계면 첫째나 셋째가 맞습니다.

- 1 보내기 전에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설명하는 느낌이 들면 문장을 더 줄이십시오.
- 2 물음표는 하나만 쓰십시오. 질문이 둘 이상이면 답장이 늦어집니다.
- 3 보낸 뒤 휴대폰을 덮어 두십시오. 확인하는 횟수가 다음 행동을 망칩니다.

재회 한방 결론

연결될 구조는 있고,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가 납니다.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발행 번호	20260101-0002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회 여지는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이 성립하고, 상대의 일간은 한번 들인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불입니다.

상대는 잊은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연락은 신청자 쪽을 권합니다. 단 38쪽의 다섯 항목을 갖춘 뒤이고, 차단 상태가 아닐 때입니다.

항목	결론
재회 여지	있음 — 삼합이라는 연결 통로가 실재
선연락 판단	신청자가 먼저. 단 준비와 상태 확인 후
우선 행동	표현 방식 바꾸기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